‘팔관회’ 호국정신 새겨 코로나 극복

부산불교, 불교문화축제 ‘팔관회’ 개최
10월16일 범어사의 선문화교육관에서

신라의 호국 불교정신 기리며
코로나19극복·국가발전 기원
선재동자 수계법회 처음 열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가 10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팔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모습.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10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전통불교문화행사 ‘팔관회’를 개최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를 통해 국가이념을 팔계(八戒)로 삼고 청정 국가를 기원했던 신라시대의 호국정신을 강조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국가발전을 기원한다.

팔관회는 오후 1시에 어린이 수계식 ‘선재동자 수계법회’로 시작한다. 선재동자 수계법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며 어린이의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확립을 돕고자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연합회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수계의식을 마련하고 불교문화를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어 오후 2시에 호국영령위령재를 시작한다.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가 범패의식을 진행하고 과거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순국장병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이어지는 호국기원법회는 코로나 조기종식과 국태민안을 발원하고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호국기원문 및 기도 △봉행사 △대회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한다.

오후 4시에는 팔관재계수계법회가 진행된다. 팔관재계수계법회는 고증을 통해 신라시대 팔관회를 재현하며 3화상 7증사의 증명으로 재가불자들이 계를 받아 지킬 것을 서원한다.

3화상은 전계대화상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갈마아사리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교수아사리 상임부회장 마나스님이며 7증사는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대한불교법화종 원로의원 진파 스님,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정산 스님 외 각 구군연합회 대표 스님들이 담당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000년도부터 팔관회를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기록에 따라 고증하고 계승하는데 앞장섰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백고좌법회, 범불교도대회, 박람회, 학술대회 등 관련 행사를 열고 팔관회가 가진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현대는 인간성 상실이란 과제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되묻고 살펴야 하는 시기이다. 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팔관회가 가진 호국불교 정신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팔관회(八關會)는 551년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연등회와 함께 국가 2대 의식 중 하나였던 팔관회는 호국적인 성격의 행사였다. 이런 팔관회가 국가적 정기 행사로 자리 잡은 것은 고려시대 들어서다.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천령(天靈)및 오악(五惡)·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龍神)을 섬기는 대회’라고 그 성격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팔관회는 불가에서 말하는 살생·도둑질·간음·헛된 말·음주를 금하는 오계(五戒)에 사치하지 말고, 높은 곳에 앉지 않고, 오후에는 금식해야 한다는 세 가지 계를 더한 8가지의 계율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에 한하여 엄격히 지키게 하는 불교의식의 하나였다. 고려에서는 이미 태조 때부터 토속신에 대한 제례를 행하는 날로 그 성격이 바뀌었지만 이런 재회(齋會)를 통해 호국의 뜻을 새기고 복을 비는 행사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팔관회는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10월 16일 오후 4시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 ‘BBA TV’와 ‘BTN불교TV’ 특별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불교의 역사, 스피치의 역사”

광명사, 불교스피치 특별강연개최
9월 26일 법회, 이현정 박사 강연



대한불교천태종 광명사가 9월 26일 지관전에서 ‘새불교 바람 · 불교 스피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현정 박사의 강연 모습.

대한불교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9월 26일 지관전에서 ‘새불교 바람 · 불교 스피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광명사는 새로운 포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강연을 개최했으며 주지 춘광 스님과 최재일 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강연은 이현정 박사(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담당했다. 이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불교의 역사가 불교 스피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언어를 통해 이어온 불교 포교 역사를 설명했다. 이어 스피치는 현 시대 모든 불자가 연습해야 할 포교 도구임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저의 스피치 강연은 기독교인들의 요청이 많았다. 불교를 믿는 저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혼란스럽기도 했다. 불교 스피치가 오히려 불교에서는 생소한 분야로 여겨지고 그 필요성이 간과되는 게 아쉬웠다”며 “부처님은 깨달으신 뒤 언어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법을 전해주셨다. 불교에서도 말을 통해 포교하고 포교의 도구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불교스피치 전문가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디지털대학에서 스피치 강의, 교육원의 승려인증교육 설법스피치강의를 하고 있다. BBS 불교방송 공채 1기 아나운서이며 KBS와 EBS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다문화M-TV 자문위원이다.

주지 춘광 스님은 “불자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자세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밖에서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행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오늘 특별강연이 탁한 말과 행동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사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대중을 위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양승규 교수(동국대), 6월과 7월에는 이필원 교수(동국대)의 초청법문이 있었으며, 9월과 10월에는 이현정 박사(불교스피치)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후 광명사는 ‘미륵대범종 주조 및 종각 건립 불사’를 앞두고 범종 명장을 초청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연합회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

10월 10일 오후 2시,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생활관
三師스님으로부터 직접수계 연비대신 삼보륜 인장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10월 10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에서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어린이 포교의 일환과 어린이들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계법회에서 전계대화상은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갈마아사리는 수석부회장 목종 스님, 교수아사리는 만초 스님, 인례는 쌍계사 율감 인호 스님이 맡는다.

이번 수계법회는 수계 대상이 어린이이지만 육법공양을 비롯해 개식, 거향찬, 청사, 참회 등 모든 수계의식을 빠짐없이 진행하고 어린이들은 三師스님으로부터 직접 계를 받는다. 단, 연비대신 삼보륜 인장을 사용하며 관정이 진행된다. 관정에는 혜원정사 약사여래불 수각의 관정수를 활용해 코로나19 극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계의식이라고 해도 장엄하게 진행해 불교의 위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수계법회에서 어린이들은 직접 육법공양을 올리며 의식에 동참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의식을 위해 참가 어린이에게 십바라밀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를 선물하고 계의 정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회장 원허 스님은 “어린이들이 3사 스님께 정식으로 계를 받는 일은 드물다. 장엄한 법회를 통해 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며 “수계는 부처님의 참다운 아들딸이 되는 첫 약속이다. 수계 인연으로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연합회가 10월 10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에서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최한 제3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에 참석한 어린이의 모습.

창원시불교연합회
제31회 산해원문화상 후보자 공모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가 지역 예술인과 언론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발전을 돕기 위해 제정한 산해원문화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후보 자격은 경남도내에 거주하고 해당 분야 20년 이상의 전문 활동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 언론인, 사회봉사자이다. 시상부문은 문학상, 예술상, 언론상, 행원상(지역개발)이다.

심사기준은 당해 연도 활동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며 종교와는 무관하다. 접수마감은 10월 31일이며 신청은 메일 masan108@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6시30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구, 풀만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산해원(山海原)문화상은 1991년 제정됐다. 향토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 언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창원 지역불교계가 수여하는 상이다. ‘산해원’은 마산, 진해, 창원의 끝 글자를 모아 창원지역을 상징하며 창원시로 통합 전에 정해진 명칭이다. 055)222-1393

성낙두 경남지사장

